

140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7) 캐리어제의 잔류에 의한 광퇴색

□ 캐리어제의 잔류에 의한 광퇴색

- 전체를 용제에 넣고 세정하는 드라이클리닝에서는 이러한 특정 부분만의 변색은 일어나지 않음. 또, 변색 상태를 보면, 짙은 색을 구성하는 색소 일부가 분해된 퇴색현상이라 판단됨.

해설)

- 퇴색의 형상을 보면 행거에 건 상태로 오목한 부분의 색이 남아있고, 그 외의 부분이 퇴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.
- 이것은 빛에 의한 퇴색일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함.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터 제품의 일광 견뢰도는 높아 이러한 퇴색이 발생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임.



- 일반적인 폴리에스터 섬유는 염색은 고압 용기에 의해서 130 °C의 고온에 의

한 분산염료 염색을 하지만, 고압용기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저온으로 염색하는 캐리어 염법이 있음. 이 경우 '캐리어제'라고 하는 염색조제가 충분히 수세되지 않고 천에 잔류하고 있으면, 지극히 일광견뢰도가 낮아져 행거에 걸린 상태로 직사광선을 받는 것만으로 퇴색되는 일이 있음.

- 이 제품은 캐리어제가 잔류하고 있던 것이 자외선으로 염료가 열화되어 클리닝에 의해 선명히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